



“‘비상경제TF’ 즉시 가동”... 민생·경제 살리기 나선다

이젠 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관련기사 2~8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업무 착수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천명
12·3 내란 재발방지 의지 드러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당선인을 공식 확정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짓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

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 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

의 결과”라고 말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정부 첫 날 코스피 2700 축포

새 정부 경제·증시 부양 속도 기대
외인·기관 순매수... 코스닥 750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에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새 정부가 경제 및 증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4일 코스피는 2700선을 뚫고 날아올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뉴노멀이 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속 미국발 관세 전쟁의 잣빛 그림자와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1일(2777.68)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에 1.34% 뛰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시는 미국발 혼풍과 신 정부 취임이라는 호재에 영향을 받았다. 미 중 정상 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관세 우려가 완화됐고 증시 부양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 양도세 폐지, 자사주 소각 제도화, 인공 지능(AI)·신산업 육성 등 자본시장 친화적 공약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증시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정치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이날 하루 1조1000억 원을 사들이며 장을 떠받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전까지 쿼터제를 전제로 일정 물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25% 관세 시행으로 무관세 혜택을 잃은 데 이어 이날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

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US스틸 매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US스틸 일본 매각을 반대한 철강 노동자들이 달래고, 매각과 관련해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각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SAMSUNG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꿈도
청년들의 기회도
우리들의 미래도

다 함께 커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삼성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